

지역문학과 국어교육

김 해 영*

<차례>

1. 서론
2. 지역성의 의미
3. 지역성과 지역문학
4. 지역문학의 수용 방안
5. 지역문학 수용과 국어교육의 확장

1. 서론

본 연구는 국어교육에서 지역문학을 수용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수용 방안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어교육 안에서 지역 언어나 문화, 문학 등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다소 급진적인 작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지역성에 대한 고려가 학교 지식이 지닌 객관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특성을 맥락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라는 점이다.¹⁾ 그 동안 학교 교육에서는 지식을 고정되어 있고 확인 가능하며, 공간이나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것으로

* 조선대학교 국어교육과 (daon304@hanmail.net)

1) 언어 활동의 상황성을 고려한 7차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 목표에서는 맥락, 대상, 목적, 내용 등의 영역을 상황성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성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체가 지식을 구성한다는 시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규정해 왔다. 이에 따라 지식을 배운다는 것에는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인간은 특정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회의 경제, 문화, 역사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발생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식은 인간이 사회와의 상호 작용 하에서 사회 현상을 이해한 결과로서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곧, 지식이란 객관적이며 초월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이 속한 특정 사회, 문화적 맥락을 통해서 구성해 나가는 것이 된다. 지식이 형성되는 맥락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지식은 특정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것이다. 지역성을 고려하는 방식은 지식을 객관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맥락적으로 보는 입장, 곧 인간이 교섭하는 특정 사회, 그가 속한 지역사회의 성격에 따라 지식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서의 선회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지역성에 대한 관심이 그 동안 교육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비의도적인 영역을 표면화하려는 의도와 관련된다는 점이다. 인간, 성장, 의도, 가치 등은 교육을 정의하는 개념들로서 그 중 교육의 의도성이야말로 인간, 성장, 가치 등을 방향 짓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학교 교육조차도 학습 환경이나 여건 등 비의도적인 국면을 포함하며, 때로는 비의도적인 국면이 학습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²⁾ 학습자가 속한 특정 사회, 곧 지역 사회는 학습자에게 비의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³⁾

2)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비의도적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여 논의된 바 있다. 잠재적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가지게 되는 모든 경험을 교육의 문제로 삼는다. 그런 의미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의 물리적 조건, 제도 및 행정적 조직, 사회 및 심리적 상황을 통하여 학교에서는 의도한 바 없으나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학생들이 은연 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에는 학교라는 공간 안으로 흡수된 사회적인 환경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본 논의의 대상인 지역 사회와는 거리가 있다.

김중서 외(1995),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pp.142-177.

3) 학습자가 지역 사회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지식, 신념, 태도를 형성하

국어교육이 학습자가 처해 있는 실제적인 언어활동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면, 지역의 언어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의 언어, 문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것으로, 그 속에는 장기간의 경험이 누적되어 있다. 인간은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표준어 중심의 국어교육이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적인 상황이 미치는 비의도적인 측면을 어떠한 방식으로 유의미하게 교육의 구조 안으로 들여오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다.

국어교육과 지역성을 연관시키는 작업이 언어 현상의 다층적인 국면, 즉 구체적인 발화 상황 및 지식 구성에 작용하는 맥락에 대한 고려이자 교육의 비의도적인 국면을 가시화하려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지역성의 문제는 문화 활동으로서 국어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화는 일상적인 삶의 다양한 의미 작용 속에 존재하면서, 언어 활동을 주체, 경험, 맥락이라는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성은 국어교육과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매개할 수 있는 개념이며, 국어교육에서 문화의 개념을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을 제공해 준다.

2. 지역성의 의미

지역이란 일정 영역을 가진 공간으로, 공간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지역과 문화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지역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일정한 물리적 공간을 중시하는 region, 지역과 범위를 중시하는 area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에서는 지역사회의 인간적인 요소가 강조된다.⁴⁾ 대체로 물리적

는 것처럼 배우려는 의지 없는 환경에 의한 학습을 우발적인 학습(김종서 외, 1994:212)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지역 사회에는 성인들의 기대가 있고 전통, 문화, 자연 자원이 있다는 점, 이러한 속에서 학습자가 성장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는 우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4) 정지웅 외(2000), 『지역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pp.1-2.

형태를 가진 일정한 영역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전체의 일부 지역으로서 최소한 지구 표면상의 한정된 공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경계를 설정하여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region으로서의 지역 개념이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 강원도 지역, 경주 지역, 충청권 등의 구분이 그것이다. 물리적인 공간으로의 지역 개념에는 역사의 공유를 통해 형성된 일정한 생활 양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인 속성이 포함된다.

지역 개념 자체는 그것이 물리적인 공간, 즉 지리에 한한 것이든 문화적 요인에 의한 것이든 간에 가치 중립적이다. 다시 말해 지역간의 차이가 중심과 주변, 선택과 배제 노선에 의해 조건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언어라고 하면 사투리를 떠올리게 되고, 지역문화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문화를 생각하며, 지역문학에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담겨 있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성이 지방적인 것을 의미하는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음을 말해 준다. 지역이라는 의미 작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바로 '분리성'이다. 지역은 서울 혹은 대도시가 아닌 곳, 곧 지방으로 의미화된다.

가치 중립적인 지역 개념이 서울의 대타적인 개념인 지방으로 자리매김되는 현실을 통해 지역이 사회적으로 위계화된 지리적 공간 속으로 배치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지역과 지역의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리적인 속성들을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가치 속에 편입시키는 구조이다. 지리적인 공간 분할에 작용하는 이러한 가치 체계에 따라 지역 문화 역시 일정한 가치 형성의 메카니즘으로 존재하게 된다. 즉,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가, 그 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조건은 어떠한가에 따라 문화도 중심 문화와 주변 문화로 위계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문화에는 서울 중심의 문화에 대응하는 서열화된 가치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지역성을 구성하는 고유한 의미 작용의 요소들이 있는데 주변성, 전통성, 일상성이 그것이다. 주변성이란 중심과의 관계에서 중심에 종속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갖는 속성을 말한다. 각각의 지역 문화가 그 고

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중심에 대한 관계로 규정될 때 지역 문화는 주변성을 갖는다.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도시/농촌, 서울/지방을 규정하는 차이가 중심과 주변으로 의미화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역의 문화까지 주변적인 것으로 만든다. 표준어가 세련되고 지적인 언어라면 지역 언어는 촌스러운 언어가 되는 것도 그러한 예에 속한다.

학교 교육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언어를 표준어로 바꾼다는 것은 공식적이고 표준화된 언어 습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표준어의 사용은 지역적인 정체성을 버리고 서울이라는 단일한 문화에 동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어는 지역 사람들에게 서울 중산층의 문화, 그들의 삶을 동경하도록 하며, 자신의 뿌리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든다. 태어나면서부터 지속해 오던 언어 습관을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언어의 기반 하에 이루어진 문화 전체, 그 문화의 기반 하에 세워진 자신의 정체성까지 부정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또한 지역성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서울이 진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공간이라면, 지역은 고유의 것, 역사적인 것을 보존하면서 이를 계승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작용한다.⁵⁾ 서울이 대중문화와 같은 동시대적인 문화의 집산지라면 지역은 전통적인 문화, 현실적인 가치보다는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더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의 요람이다. 다시 말해 지역 문화와 전통성의 관계는 지역에 보존해야 할 전통적인 문화가 남아 있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지역을 전통적인 것 속에 자리매김함으로써 서울과 구분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5) 서울과 지역 사이에 작용하는 권력 관계에 대해서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이론의 관점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동양적인 것이 동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력의 중심에 있던 유럽에 의해 규정되는 것처럼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도 지역 공동체에 의한 규정이 아니고 서울이라는 중심 권력에 의해 규정된다.

L. 간디(이영욱 역, 2000),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마지막으로 지역성은 일상성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서 일상성이란 의미 있는 삶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거의 의미가 없는 생활의 연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 문화는 일상성을 통해 서울 중심의 의미 있는 문화와 대립한다. 지역 문화가 일상성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지역이 갖는 시간의 흐름과 연관된다. 서울 중심의 문화가 매시간 변화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직선적인 시간 패턴을 지니는 반면 지역은 반복, 순환의 시간 패턴을 지니고 있다. 변화를 중심에 놓고 보았을 때 일상적인 것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의미 없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지역 문화에 대한 접근은 일상 생활의 형식을 구성하는 권력 관계를 검토하고 그러한 권력에 봉사하는 이해 관계들을 드러내는 정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지역성의 의미 작용이 서울과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서울 중심의 언어, 문화, 문학이 보편적인 것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지역적인 것은 아직은 보편적이지 않지만 조만간 서울 중심의 질서에 통합되어야 할 것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지역성의 문제를 가치 중립적인 시각으로 재편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은 서울이 보편성의 기준으로 자리잡는 현상을 극복하는 일이다. 이는 지역성을 서울 중심의 보편성에 통합되어야 할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극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학에 국한하여 지역문학이 지역성이라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극복의 사례를 통해 지역문학을 국어교육에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3. 지역성과 지역문학

지역문학이란 지역의 문제를 제재로 하는 문학이다. 지역 출신의 작가, 지역의 문제, 지역 문단 등 지역문학을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 중에서 지역의 문제를 선택한 데에는 지역문학을 논의할 수 있는 매개를 문학의 범주 안에서 찾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 출신의 작가가 쓴 문학, 혹은 지역 문단에 발표된 문학을 지역문학으로 정의할 경

우, 문학 영역을 지역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향 설정이 문학 일반뿐만 아니라 문학교육의 차원에서도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문학의 경우, 지역성을 내세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언어, 문화, 문학의 영역 중 문학이 가장 먼저 지역적인 것 속에서 보편적인 것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⁶⁾ 지역의 문제는 문학의 보편적인 주제인 인간 소외를 사회 구조 차원에서 설명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자아와 세계의 결렬이라는 근대문학의 구조와 대도시의 팽창과 주변 도시의 상대적인 소외라는 근대화의 구조가 맞닿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성의 주변적이고 전통적이며 일상적인 속성들은 문학의 특정 코드 속에 통합됨으로써 문학 일반으로 자리매김된다. 인간이 사회 혹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접점들이 문학의 소중한 제재가 된다고 하겠다. 문학은 지역이 갖는 특성을 인간이 직면하는 보편적인 정황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지역성을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적인 조건으로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국어교육이 지역문학을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학이 문학 일반의 속성으로 자리잡는 과정이란 다른 아닌 지역성을 규정하는 의미 작용의 요소들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국어교육 안에서 지역문학이 논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문학에서 제기하는 지역이라는 구체적 공간의 문제를 삶의 문제, 문화적 실천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국어교육에서도 지역문학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의 문제를 삶의 문제, 실천의 문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매개를 문학의 허구적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허구적인 속성은 특정 지역 속에 살고

6) 지역언어, 문화, 문학의 관계 속에서 문화에는 한 지역의 예술적, 지적 작업들이 포함된다. 한 사회의 비의적인 상징 체계일지라도 생산되고 침전된 상징영역이 문화이다. C. 젠크스(김윤용 역, 1999), 『문화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p.26. 국어교육에서 언어 활동을 문화적인 활동으로 볼 경우의 문학은 지역문화의 문화 개념을 포괄한다.

있는 개별적인 인간의 모습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문학 장르의 수용 조건이다. 허구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사실에의 조화 없이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특정 지역의 문제, 가령 농촌이나 주변 도시의 문제가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역의 문제는 인간이 직면한 주변적인 세계라는 보편적인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허구를 넘어서 현실 자체를 조화하기도 한다. 허구가 현실 자체를 조화할 수 있다는 점은 문화적인 실천이라는 국면에서 지역문학을 바라보는 계기가 된다.

이를 위해 지역성이 중심과 주변, 현대와 전통, 일상과 탈일상이라는 다양한 층위의 갈등 속에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갈등이 빚어지는 지역을 이데올로기적인 접점으로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인간과 사회, 인간과 세계라는 추상적인 범주가 아니라 특수하고 구체적인 공간 속에 존재하는 개인이라는 범주로 재구성할 때 문학 속에 제시된 갈등을 문학 속에 나타난 지역적인 갈등으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국어교육의 지향점 중의 하나가 바람직한 언어 문화의 수립에 있다면 지역문학이 가진 실천적인 국면이야말로 언어 문화에 도달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 여러 형태의 삶의 방식 및 이들 사이의 갈등 양상까지를 포함한다. 문화는 의미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데 관여하는 의미 투쟁의 장소인 것이다. 문화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문화는 단선적이고 정태적인 것일 수 없으며, 다양한 갈등 속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역문학 속에 내재된 갈등의 구조는 국어교육을 다층적인 의미 작용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국어교육이 지역 문학 속에 내재된 갈등을 읽어내고 이를 유의미한 논의의 범주로 끌어올 수 있을 때 삶과 실천의 차원에서 국어교육을 이해할 수 있다.

4. 지역문학의 수용 방안

1) 전통의 창조적 계승

지역에는 오랜 시간을 두고 전해 내려온 관습, 문화로 인해 그 지역 나름의 전통이 형성된다. 전통이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생활의 방식이다. 지역문학은 그 특성상 그 지역의 전통을 이해하고, 계승하는 데 유리한 입장에 있다. 지역문학에서는 전통을 하나의 능동적인 형성력⁷⁾으로 볼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해 준다. 따라서 국어교육이 전통적인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승하는가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할 때, 지역문학이 이를 위한 적절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전통을 계승하는 작업은 전통을 유지한다는 차원과 함께 이를 동시대의 생활 감각에 맞게 창조적으로 변형하여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변형시킨다는 차원에서 모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을 후자이다.

지역문학이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것을 현대적인 것과 대비시키면서 이 시대에 전통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묻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문화를 변형시켜 문학의 내적 형식으로 삼는 경우이다. 전자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전통의 의미를 탐구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전통을 형식적인 차원으로 변형시킨 예라고 할 수 있다. 김동리와 이청준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소설의 소재로 삼음으로써 전통이 무엇에 의해 규정되는가를 밝히고 전통적인 삶에 작용하는 근대적인 폭력을 포착한다.

김동리의 <무녀도>는 경주지역에 살고 있는 무녀 모화와 기독교 신자가 되어 돌아온 아들 옥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모화가 모시는 토속적인 신은 신흥의 신인 예수와 대결하게 되며 그러한 대결을 통해 모화가 살고 있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부단히 새로운 것과의 대결을 통해 소멸해 가는 모습을 제시한다. 장인을 소재로 한 이청준의 일련의 소설에

7) R. 윌리엄즈(이일환 역, 1991), 『이념과 문학』, 문학과학지성사, p.141.

서도 현대문명 속에서 전통적인 삶을 고수하는 장인들의 삶을 통해 삶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소설은 매잡이, 소리꾼, 궁인 등 전통 사회에서 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외되어 가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이청준의 소설은 문명화의 속도를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기존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자들이 누리는 삶의 방식을 통해 근대화된 삶과 근대화 이전의 삶 사이를 대비시키고 있다.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방식 중 두 번째의 것은 전통을 변형시켜 문학의 내적 형식으로 삼는 경우이다. 전통적인 것과 당대가 당면한 문제를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은 전통을 계승하는 입장에서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채만식은 <태평천하>에서 일제시대의 매판 자본가의 실상을 비판하기 위해 판소리의 서술 양식과 풍자를 결합하였으며, 김유정은 그의 일련의 소설에서 주변부 사람들의 궁핍한 삶의 방식을 전통적인 해학으로 형식화하였다. 이러한 예들은 전통적인 문화가 문학의 내적 형식으로 변형된 예에 속한다. 이러한 변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판소리, 혹은 해학의 문화에 익숙해야 하는데 특히 그 지역 출신 작가의 작품에서 성공적인 변형의 예를 만나게 된다.

2) 문화적 갈등의 이해와 조정

지역문학은 전통적인 문화를 창조적으로 변형하는 일뿐만 아니라 당대의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동시대적인 갈등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다. 특히 서울과 지역, 도시와 농촌의 지역 차에서 오는 갈등은 6,7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가속화된다. 도시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는 팽창되고 농촌은 상대적인 궁핍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발표된 문학 대부분이 주변부의 상대적 궁핍감을 형상화한다.

신경림의 시는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특히, 그의 시에는 그동안 추

상적으로 접근해 왔던 농촌 생활의 핵심을 파고들어 농촌의 궁핍에 내재한 구조적인 모순을 읽어낸다. <농무>에서는 농촌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농무조차도 지역 사람들을 단합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쪼무래기들’의 놀이일 뿐인 현실 속에서 농촌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자의식은 ‘원통합’으로 표현된다. ‘원통합’이라는 정서는 농무의 신명과 어울어져 상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날라리는 불 것인가 어깨를 흔들 것인가를 망설이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정서들이 상쇄될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내기도 한다. 신경림의 시 중에서 지역적인 갈등이 가장 잘 내면화된 시는 <寵場>이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밭소 앞에 서서 참외를 꺾고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키면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같은 얼굴들
 호남의 가뭄 애기 조합 빗 애기
 약장사 기타 소리에 발장단을 치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만 서울이 그리워지나
 어디를 들어가 쉴다라도 별일까
 주머니를 털어 색시집에라도 갈까
 학교 마당에들 모여 소주에 오징어를 찢다
 어느새 긴 여름해도 저물어
 고무신 한 켤레 또는 조기 한 마리 들고
 달이 환한 마창길을 절뚝이는 파장⁸⁾

이 시에는 지역적인 결핍감과 서울에 대한 지향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못난 놈, 소주, 막걸리, 쉴다, 가뭄, 빗, 약장사, 기타, 색시집, 고무신 한 켤레, 조기 한 마리, 절뚝이는 파장으로 기술되는 농촌의 생활을 서울에 대한 그리움과 대비시킨다. 추상적으로 제시된 서울이라는

8) 신경림(1990), 『농무』, 창작과비평사, p.14.

개념 속에는 고통스러운 삶의 잔재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과 농촌의 대비는 농촌에서의 삶을 더욱 살기 힘든 것으로 만든다. 서울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농촌은 '절뚝임'으로 형상화된다. 농촌의 삶은 서울의 삶과는 달리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섶다나 색시집, 술 마시는 것 등은 소모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 시에 나타난 농촌의 형상화 방식은 서울에 대한 지향이 배제되어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국어교육에서는 지역문학이 표현하는 주변부의 소외를 통해, 주변과 중심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읽어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쪽으로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동시대의 사회, 문화 사이에 갈등이 존재함을 알고 그러한 갈등을 읽어 내며 나아가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지역문학을 문화적인 실천 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을 마련해 준다.

3) 정전에 대한 비판

지역문학은 지금까지 교과서에 수록된 정전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성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정전 선택의 기준 및 정전 중심의 교육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정전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정전을 규정할 때 무엇이 정전으로서의 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정전으로 볼 것인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합의된 바는 없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정전을 선택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이데올로기적 함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술 담론이 교육 담론에 통제와 변형을 가하는 방법이 단순화에 있음을 지적한 논문⁹⁾이나 현대시의 경우 문협 정통파 중심의 순수시와 민족시가 정전으로 자리잡는 과정과 꼼꼼히 읽기의 방식이 단일한 정체성예의 순응을 강요함으로써 신비평이 학생들의 문화적 체험을 제한함을 밝힌 논문¹⁰⁾

9) 최지현(1994), "한국 현대시 교육의 담론 분석-1940년대 '저항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은 그러한 예에 속한다.

이러한 연구에 덧붙여, 정전 선택에는 구체적인 시공성, 즉 사회적인 함의가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공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을 표현하여 어떤 상황의 누구라고 이해 가능한 내용인가의 여부이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이별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공감을 줄 수 있는 시이며 김수영의 <풀>은 구체적인 실체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떠한 억압과 저항의 문제를 형상화한다. 윤동주의 <서시>는 저항과 순수의 양면을 표현해 내고 있다. 정전에 포함된 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인간이면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라고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를 비유적인 차원에서 다룬다는 점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험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추상적인 관계와 갈등을 학습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도록 하여 정서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것은 문학 작품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정서를 환기한다는 의미 외에 더 기대할 수 없다. 문학 작품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목적 중 하나는 언어가 지닌 이데올로기적 특성으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 있다. 생략된 언어의 사용, 간결한 결론, 함축적인 비유 등은 학습자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시공간과 유리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야기하는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세계와 동떨어져 존재하는 갈등 없는 세계를 추구하게 된다.

지역문학은 문학작품을 하나의 구체적인 시공성 속에서 생산된 것으로 바라봄으로써 문학적 표현을 갈등의 장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변형시킨다. 특수한 시공성 속에 보편적인 주체는 존재할 수 없다. 시공간 속의 주체를 부각시키는 일은 지금/여기에 존재하는 주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체성이 형성되는 기본 조건은 주체가 자신이 속한 공간적인 토대로부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10) 정재찬(1996), “현대시 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말해 주체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환경, 인간 관계를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므로 지역문학은 주체를 구체적인 맥락 속의 인간으로 바라본다는 점 외에도 주체가 지금/여기를 긍정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용악의 <낯은 집>의 경우, 식민지의 수탈 상황에서 한 가족의 몰락을 그려낸다. 몰락의 과정이 구체적인 시공성을 확보한 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마을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재현된다. 이러한 시의 효과는 개인이 겪는 고난이란 보편적인 것으로 전환할 수 없는 특정 시공간적 배경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고난이 바람에 저항하는 풀로 형상화되었을 때, 그러한 풀이 처한 상황에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던 일, 친구들에게 소외된 일 등을 투사하여 풀에 공감하는 것과는 다르다. 풀이 직면한 상황에 공감하는 것은 단어의 비유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훨씬 경제적인 방법이지만 그러한 효과를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전략이 구체적인 시공간의 배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용악의 시는 구체적인 정황을 보여주기 위해 구체적인 시공간을 제시한다. <낯은 집>은 함경북도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이다. 이 가족의 이야기 속에 수탈의 상징들을 끼워 넣음으로써 왜 이 가족이 집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표현한다. 당나귀와 등글소로 생계를 유지하던 털보네가 찾길이 놓이면서 그 생계마저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식민지의 수탈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묘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배경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시공성이야말로 개인의 특수한 경험을 전달하는 방식이며 이 특수성이 정전의 탈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을 비판하고 탈정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개라고 할 수 있다.

4) 감상 교육의 매개

국어교육의 연구 영역을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한다고

할 때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국어교육에서 소홀하게 취급되어온 부분 중 하나이다.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감정, 정서, 기분, 느낌과 같이 정의적 영역을 담당한 하위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습자의 감상 차원에 국어교육이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문학은 지역적인 감수성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문학이 전제하고 있는 문학적인 감수성을 감상교육의 매개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오관을 통해 사물의 체험을 생생하게 하는 것에서 형성되는 감수성은 정서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감각적 체험의 형성 능력이다.¹¹⁾ 감수성은 특정 지역 공동체의 취향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형태로의 실천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지역 공동체는 그 지역 문화 현상에 대해 정서적인 공감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감수성이다. 다시 말해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공유하는 특정한 감수성의 체계를 지니고 있다. 전혀 모르는 상황에 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멀리 있는 곳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감수성을 작동시키는 일이 훨씬 쉽다. 지역문학에서는 지역 공동체의 감수성 체계를 발견하고 이를 형상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문학은 그 지역의 문화적 감수성의 공유를 통해 정의적 영역을 교육하게 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지역 언어인 사투리의 사용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윤홍길의 <장마>에 나오는 외할머니의 사투리는 이 작품의 가장 뛰어난 부분 중 하나라고 하겠다. 전라도가 고향인 사람에게서는 사투리의 역량이 하나하나 살아서 다가오게 된다. 언어의 공유에서 오는 문화적 감수성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장마>에 나오는 사투리는 전라도 지역 사람이 아니라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사투리의 사용은 단지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의사소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언어를 만난다는 즐거움, 즉 친숙한 것에 대해서 느끼는 공감이기 때문이다.

11) 이상섭(1992),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p.11.

이러한 공감은 특정 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투리의 사용과 함께 문화적 감수성을 촉발시키는 동인은 문화의 공유이다. 서정주의 <선운사 동구>라는 시에서는 선운사의 동백꽃을 육자백이와 연결하고 있다. 육자백이 가락을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목이 쓴 육자백이 가락을 동백꽃과 연관시키는 것은 특히 동일한 지역 사람의 감수성을 유도할 수 있다. 목이 쓴 육자백이 가지는 정서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감수성의 공유가 필요한 것이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는 판소리와 육자백이가 오가는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에서 서정주의 <선운사 동구>를 이해하는 것은 훨씬 수월하다. 이러한 현상은 최영미의 <선운사에서>가 보편적인 이별의 문제를 통해 선운사 동백꽃에 접근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최영미의 <선운사에서>에는 시적 화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데 작용하는 문화적인 두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5. 지역문학 수용과 국어교육의 확장

4장에서 지역문학을 수용하는 일이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계승 작업, 갈등 교육, 탈정전 교육, 감수성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논의하였다. 이는 지역문학이 주변성이나 전통성, 일상성을 어떻게 유의미한 논의의 범주로 변형시키는가의 문제에 국한한 논의였다. 이와 같이 문화적인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문학으로 지역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은 문학을 삶의 실천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국어교육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구도 자체가 지역성을 주변적이고 전통을 고수하는 정체된 곳으로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변경시킨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보다 능동적인 방식으로 지역문학에 접근하는 방법적인 모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역문학을 국어교육의 논의체계 안으로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의 탐구에서 나아가 지역문학을 통해 국어교육을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적 모색을 위해서 지역성을 다원적인 교섭이 가능한 범주로 바라보아야 한다.¹²⁾ 예를 들어, 세계적인 것이 지역적인 것이고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지역을 중심의 주변이 아니고 중심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¹³⁾ 세계화의 기획에서 중요한 것은 각 민족, 지역 나름의 고유한 문화를 중시하고 문화간의 교류를 인정하는 다문화의 옹호이다. 이러한 입장을 교육적 차원에서 수용할 때, 동질성을 강조해 온 공교육 체제는 차이, 다름을 인정하는 다원화 교육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¹⁴⁾ 다원적인 관계에는 우/열, 중심/주변의 가치 평가가 개입되지 않기 때에 지역이 가진 본래의 개념을 회복하는 일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주변과 중심의 관계가 아니고 각각의 지역간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역이 존재하게 된다.

다문화의 옹호라는 관점에 설 때, 그동안 교육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던 표준화, 규범화, 향존성과 같은 개념들이 전제하고 있던 표준어/사투리, 문어/구어, 세련된/거친의 이분법적인 틀을 깰 수 있다. 이는 사투리에서 표준어로 전이되는 과정이 마치 교육의 핵심인 것으로 인식해 왔던 기존의 관점을, 각각의 언어활동이란 그 지역사회에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실천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국어교육은 다문화의 인정을 통해 각 지역의 삶 속에 존재하는 문화적인 정체성을 극복의 대상이 아닌 고유의 가치로 받아들여, 국어교육의 영역을

12) 최근 일어나는 지역의 재구조화 문제도 이와 연관된다. 국가하위단위의 지역은 국민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진 지역화의 산물이며 자본주의 발전의 공간 모형의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임시적이고 애매모호하며 창조적으로 파괴적인 독특한 지리적 차별화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지역주의 역시 지역화에 대해 있을 수 있는 반응으로 본다. 지역의 재구조화는 지리적 불균등 발전의 원인, 결과, 그 특성과 필연성을 구체적으로 재이론화하는 의도를 갖는다. E. 소자(이무용 역, 1997),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 언어, pp.205 -240.

13) R. 로버트슨(윤민재 편역, 2000), “세계지역화:시간-공간과 동질성-이질성”, 『근대성, 탈근대성, 그리고 세계화』, 사회문화연구소.

14) 심성보(1995), 『전환시대의 교육사상』, 학지사, pp.343-358.

확장할 수 있다.

국어교육은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 발생하리라고 예측되는 권력의 기류를 읽어내는, 언어 활동의 역동적인 국면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최근 매체 언어에 대한 관심은 동시대의 문화를 읽고 그러한 문화적 작용을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중 문화는 대중이라는 보편적이고 익명의 주체를 생산하는 것과 함께 가치에 무관심하다는 점과 비교할 때 지역언어, 문화, 문학이 가진 장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역문학은 학습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학습자가 속한 공간성으로부터 정체성을 설명하려는 입장은 복제된 생산물이 범람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간이 지닌 유일한 것, 복제 불가능함이 지역성의 토대가 되는데 이 유일성은 벤야민이 말한 아우라에 해당한다. 지역문학은 공간의 아우라를 복원하여 주체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동질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어교육은 지역언어나 문화, 문학에 관심을 둬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 정체성과 함께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언어, 문학에 대한 관심은 정체성 추구의 교육이론과 연관될 수 있다. 또한 지역문학이 그 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갈등 교육을 위한 주요한 제재가 된다. 국어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식과 경험, 이론과 실천의 괴리이다. 특히 언어는 각 지역의 문화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실시하는 언어 활동이 학습자가 처한 문화적인 맥락과 유리될 수 있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의 목표는 지식으로부터 사용의 상황으로 나아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¹⁵⁾

지역언어, 문화, 문학을 고려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7차 교육과정의 목표는 지식으로부터 사용의 상황으로 나아가는 구조가 아니고 실제 언어 활용이 이루어지는 맥락으로부터 기본적인 지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위해서도 지역언어와 문화, 문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지역의 언어, 문화, 문학에서 출발하는 것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 구성주의와 연관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1998), 『국어과 교육과정』.
- 신경림(1990), 『농무』, 창작과비평사.
- 김종서 외(1995),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 김종서 외(1994), 『최신 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 심성보(1995), 『전환시대의 교육사상』, 학지사.
- 정지웅 외(2000), 『지역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재찬(1996), 「현대시 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논문.
- 최지현(1994), 「한국 현대시 교육의 담론 분석-1940년대 ‘저항시’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 간디, L.(이영옥 역, 2000),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 젠크스, C.(김윤용 역, 1999), 『문화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15)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1998), 『국어과 교육과정』, p.29.

- 로퍼드슨, R.(윤민재 편역, 2000), 「세계지역화:시간-공간과 동질성-이질성」, 『근대성, 탈근대성, 그리고 세계화』, 사회문화연구소.
- 소자, E.(이무용 외 역, 1997),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 언어.
- 윌리엄즈, R.(이일환 역, 1991), 『이념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초록>

지역문학과 국어교육

김 혜 영

본 연구는 국어교육에서 지역문학을 수용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수용 방안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어교육과 지역성을 연관시키는 일은 언어 현상의 다층적인 국면, 즉 지식 구성에 작용하는 맥락에 대한 고려이자 교육의 비의도적인 국면을 가시화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국어교육의 문화적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우선 지역성을 구성하는 의미 작용의 요소로서 주변성, 전통성, 일상성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특히 문학 영역에서는 지역적인 것을 세계, 사회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보편적인 것으로 만드는 점을 고려하여, 국어교육에서 지역문학을 논의하려면 보편적인 영역으로 통합되었던 지역적 속성을 갈등의 기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지역문학이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의 문제를 삶의 문제, 실천의 문제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국어교육의 장을 다양한 힘들이 길항하는 역동적인 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국어교육에서 지역문학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통의 창조적 계승, 차이·갈등 교육, 탈정전 교육, 감수성 교육의 네 영역을 다루었다. 보다 능동적인 방식으로 지역문학에 접근하기 위해 지역성을 다원적인 소통이 가능한 범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탈중심의 논리는 중심과 주변의 이원적인 개념틀을 지양하고, 다원적이며 분산적인 새로운 소통의 체계를 정립할 수 있다. 지역문학이 서울 중심적인 구도와 문학 일반의 보편적인 준거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비판하는 문학이 될 때, 국어교육은 지역문학을 통해 삶과 교육의 괴리를 극복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지역성, 지역문학, 전통성, 주변성, 일상성, 문화적 갈등, 조정, 정체성

<Abstract>

Regional Literature and Korean Education

Kim, Hye-you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meaning of accepting regional literature in Korean education and to suggest the concrete acceptance method. A linkage between Korean education and regional nature is a consideration about multiple situations of language appearance, that is, veins acting on knowledge construction. And it is an opportunity to expand cultural areas of Korean education by means of a job for showing unintended aspect of education. First of all, I set categories of the marginality, traditionality, quotidiannity as elements of meaning operation to construct regional nature. Specially, in culture area, considering making universal things by changing regional things into society, world and so on, when we discuss regional literature in Korean education, I emphasized that a change of vision is needed to mark regional nature which is united to universal area into the origin of trouble. I realized that I could make a field of Korean education into a dynamic field various powers are rivaling in respect that regional literature resolve a problem of concrete space into a problem of life and a problem of practice. I dealt with four areas, that is, creative succession of tradition, difference and discord education, false cease-fire education, sensibility as ways of accepting regional literature in Korean education. We have to look regional nature as a area that multiple communication is possible in order to approach regional nature more dynamic way. Through a logic of decentralization, we can sublimate dual concept

framework and set a system of multiple, multilayered, divergent and new communication. When regional literature gets out of Seoul oriented structure and universal criteria of literature general and becomes a literature understanding and criticizing a problem happening here right now, I believe that Korean education could find the way to overcome estrangement between life and education through regional literature.

【Key word】 regional nature, regional literature, traditionality, quotidiannity, cultural complications, adjustment, identity